

## [2차 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9년 3월 3일(화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 미혼모 낙인, 굴레를 벗어나

-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, 그 현주소 밝혀...
- 외국의 미혼모 지원 사례 통해 한국 미혼모 정책 해법 찾는다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주 관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09년 3월 3일(화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info@kw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김금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3월 4일(수)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(1층)에서 「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」을 주제로 제52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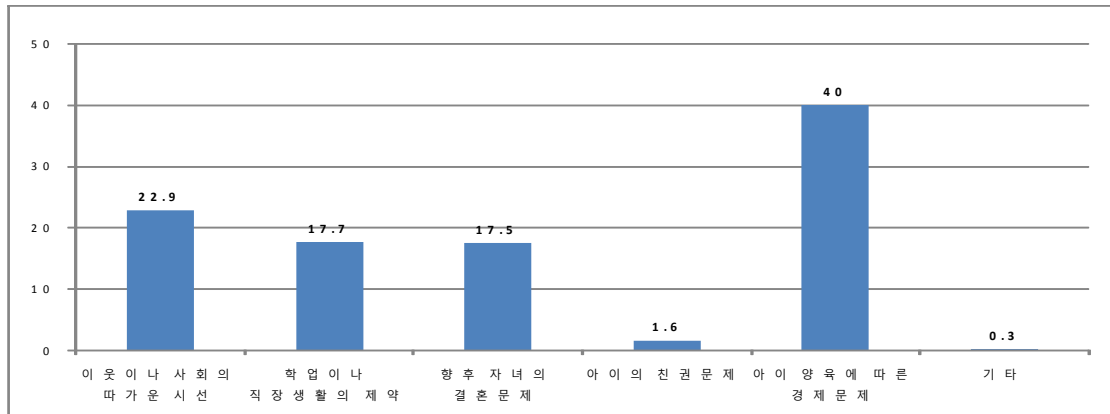
## 제52차 여성정책포럼 개최

- 주제 :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
- 일시 : 2009년 3월 4일(수), 14:00-17:00
-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(1층)
- 주최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·국회의원 김금래
- 후원 :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(닥터 보아스 회장)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‘미혼부·모와 그들 자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’와 ‘한국사회의 미혼모 수 추정’을 수행해오고 있다.
- 미혼모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편견으로, 이는 미혼모들이 직접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혜영·안상수 연구위원은 이날 “미혼부·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”을 주제로, 이미정 연구위원은 “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”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.
- 김혜영·안상수 연구위원은 “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, 때로는 여성 개인의 시민적, 모성적 권리를 부인하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.” 고 지적했다.
- 따라서 미혼모·부의 지원정책은 무엇보다 이들이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모색함은 물론 이들과 이들 자

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”임을 주장했다.

[그림] 미혼모(부)의 어려움 (단위: %)



□ 한편 이미정 연구위원은 “해외입양의 대안으로 미혼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.” 고 밝혔다.

□ 이미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“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 5.8%에서 2005년 31.7%로 증가했다.” 고 지적하며, “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망설이는 미혼모에게 아동양육 지원이 보장된다면 양육 미혼모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입양 보내는 미혼모는 감소할 것이다.” 라고 주장했다.

□ 이번 포럼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,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의 현황 및 외국의 미혼모 정책동향과 미국의 미혼모 지원 사례를 통

해 한국의 관련 정책에 긍정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☐ 이번 행사에는 미혼모 지원기관 종사자, 입양기관 종사자, 해외입양인, 미혼모, 공무원, 관련연구자, 정치인,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.

## 별첨 1. 발표자 프로필

### 세릴 미첼(Cheryl Mitchell) 교수

세릴 미첼(Cheryl Mitchell) 교수는 사회정책학 박사로서 현재 버몬트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미첼박사는 학자이기 전 아동, 가족, 주택,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30여 년간 헌신해 온 현장 실무가이기도 하다.

1979년 미첼박사는 버몬트주 애디슨 카운티 (Addison County)에 <부모와 자녀센터 (Parent and Child Center)>를 설립한 후 이후 10여 년간 임신과 양육을 경험한 십대청소년 지원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쳤다. 또한 버몬트대학에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석사과정 만들어 후학양성에도 힘썼다.

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버몬트주 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며 아동복지 및 육아, 청소년 및 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경력을 가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무전문가이다.

## 별첨 2. 행사일정

구 분	세 부 내 용
13:30-14:00	등 록
14:00-14:30	<p><b>사 회</b>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</p> <p><b>인사말</b> 김금래 국회의원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</p>
14:30-15:45	<p><b>사 회</b> 허남순 한림대학교 교수</p> <p><b>발 표</b></p> <p><b>미혼부·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</b>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</p> <p><b>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</b>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</p> <p><b>외국의 미혼모 양육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함의</b>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</p> <p><b>미국의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: 편견은 줄이고 지원 서비스는 늘리기(Building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: Reducing Stigma - Increasing Services: An Overview)</b> 셰릴 미첼 미국 버몬트대학 교수 (Cheryl Mitchell Professor, University of Vermont)</p>
15:45-16:00	휴 식
16:00-16:40	<p><b>지정토론</b> 김 혜 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김 은 영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봉 주 서울대학교 교수</p>
16:40-17:00	종합토론 및 폐회

##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[www.kwdi.re.kr](http://www.kwdi.re.kr)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